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음악교과 학습지도의 연구방안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손 주 희

2013년 8월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음악교과 학습지도의 연구방안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대식

손주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손주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The Study on Music Teaching Applying
Dalcroze's Teaching Method
: for The 10th Grade Students

Son, Ju-hee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3.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3
1) 연구 방법.....	3
2) 연구의 제한점.....	4
II. 본론	5
1. 달크로즈의 생애와 교육철학.....	5
1) 달크로즈의 생애.....	5
2) 달크로즈의 교육철학.....	7
2. 달크로즈 교수법.....	10
1) 유리드믹스.....	11
2) 솔페즈.....	18
3) 즉흥 연주.....	20
III.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학습지도안.....	22
1. 학습지도안 내용.....	22
1) 도입.....	24
2) 전개.....	25
(1) 유리드믹스.....	25
(2) 솔페즈.....	27
(3) 즉흥 연주.....	27
3) 정리.....	28
2. 실제 학습지도안.....	29
1) 1차시 학습지도안.....	29
2) 2차시 학습지도안.....	33

3) 3차시 학습지도안.....	38
4) 4차시 평가.....	44
IV. 결론.....	48
<부 록>.....	52
<참고문헌>.....	58
<국문초록>.....	60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세 가지의 리듬 유형.....	13
<표 2> 리듬과 관계된 요소 34항목.....	14
<표 3>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게임의 수업 형태.....	16
<표 4> 이동 동작과 비 이동 동작.....	17
<표 5> 솔페즈의 2가지 유형.....	19
<표 6> 학습지도안 형식.....	22
<표 7> 말로 하는 즉흥 연주.....	31
<표 8> 말 리듬 예시.....	35
<표 9> 내칭 솔페즈의 예시.....	36
<표 10> 주제곡 몸동작 활동.....	36
<표 11> 음표 게임 예시.....	39
<표 12> 셈여림 게임 예시.....	40
<표 13> 팀별 코레오그래피 활동.....	42
<표 14> 노래로 하는 즉흥 연주의 예시.....	47

그 립 목 차

<그림 1> 음표 활동 유리드믹스.....	26
<그림 2> 셈여림과 음높이에 따른 유리드믹스.....	26

악 보

<악보 1> ‘도-도’음계를 통한 솔페즈.....	20
<악보 2> ‘폴리코드-다이코드(Dichord)’ 익히기 솔페즈.....	20
<악보 3> 1차시 주제곡.....	30
<악보 4> 2차시 주제곡.....	34
<악보 5> 3차시 주제곡.....	39
<악보 6> ‘도-도 솔페즈’.....	41
<악보 7-1> 평가악보.....	45
<악보 7-2> 평가악보.....	46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음악은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며,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분야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음악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수치로 계산하여 증명할 수 없는 학문이며, 눈으로 악보를 보며 악기나 신체를 통하여 소리를 내면 귀에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독특한 교수법을 창안해 내었다고 한다.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이것이 그의 교수법의 핵심이다.

음악교육은 음악의 미적 경험과 감상 능력 배양 및 음악적 표현 능력, 음악 개념 이해,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고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¹⁾, 음악의 본질에 대하여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²⁾고 밝히고 있다.

달크로즈는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음악과 신체표현을 결합하여 지도해야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의 리듬감은 몸의 리듬감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음악적 감각’이 ‘몸의 움직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감지하고 리듬을 표현하게 하는 학습이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음악적 리듬감이 발달된다고 보았다.³⁾

1) 교육과학기술부(2009), 「음악과 교육과정」, 미래엔(대한교과서), p.2

2)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미래엔(대한교과서), p.27

3)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1),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p.224

교사가 흥미로운 학습도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자의 음악재능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⁴⁾는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을 인간의 지능 영역 8가지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개인 별로 음악적 지능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학생들의 자아완성과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음악적 성장이며, 이 지능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⁵⁾

본 연구자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며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음악과 동작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경험을 통한 수업이 음악 이해력,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4)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발달심리학 교수(1943-)

5) -, 전게서, p.46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5월에 이루어 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고등학교 1학년1반 학생들을 연구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음악교육 현황과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알기위하여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유아기부터 현재까지 음악시간에 활동 수업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8명 중 4명인 14.3%가 활동수업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 활동수업에 즉흥 연주를 받아본 경험에는 모두가 없다고 답하였다. 또, ‘리듬 막대로 들려주는 리듬들이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8명 중 7명인 25%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피아노의 음을 듣고 음의 높낮이나 차례가기·건너뛰기의 구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8명(28.6%)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부록]에 수록된 총5개 문항에 대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음악 듣기 능력과 음악의 이해도를 연구자가 교육실습을 하며 실력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안을 작성 하였으며, 수업은 3차시로 진행 하였다. 교재는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태림),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게임(태림), 고등학교음악(태성)을 참고하였다. 교안에 쓰인 곡은 교과서에 실린 곡들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영역인 유리드믹스(Eurhythmics), 솔페즈(Solfège), 즉흥 연주(Improvisation)를 각 차시마다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집단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사전 설문지를 조사하였고, 이전의 시범 연구수업을 통해 연구 집단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둘째,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영역-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후 적절한 악곡을 음악 교과서에서 찾아보았다.

셋째, 각 악보들을 달크로즈 교수법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참고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여 교안을 3차시로 나누어 작성 하였다.

넷째, 학생들이 달크로즈 교수법을 처음 접하고 학교 특성상 수업진행의 수준은 초급을 기본으로 교안을 작성하였고,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정하였고, 지도안은 도입-전개-정리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3차시의 연구가 끝난 후 솔페즈는 악보에 기보하며 평가 하였고, 즉흥 연주는 수업에 사용되었던 방법들 중으로 선택, 유리드믹스는 4차시에 실린 악보를 보여주어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알아보았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조사에서 국내 달크로즈 논문과 교재들을 찾아보았으나, 주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이었으며, 그 또한 유리드믹스를 연구한 논문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참고 자료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필자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이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3대 영역을 고루 경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적합한 수준의 지도안을 작성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3차시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으므로 타 학교, 타 지역의 동학년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본론

1. 달크로즈의 생애와 교육철학

1) 달크로즈의 생애⁶⁾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는 1865년 7월 6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페스탈로치(Pestalozzi) 철학을 연구한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가 10세가 되던 해에 스위스인이었던 부모를 따라 고국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

달크로즈에게 있어서 어머니 줄리(July-Jaques)는 스승이자 음악교육방법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6세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 또한 그는 문화의 도시 비엔나에서 살면서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음악적인 배경은 그가 7세 되던 해에 6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882년 그가 17세가 되던 해에 바이올리니스트 Eugene Ysaie(1858-1931)⁷⁾의 반주자로 함께 연주 투어를 다니며 큰 경험을 하게 된다. Ysaie는 연주자는 반드시 작곡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주하며 표현법에 있어 강약, 연주속도 등을 조심스럽고 과장 없이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달크로즈에게 한 프레이즈가 끝나면 호흡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 연주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노래하는 연습을 지시하였다. 달크로즈는 이러한 연주의 경험을 통해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만의 음악교수법을 창안해 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⁸⁾

1884년, 달크로즈는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당대 유명한 작곡가였던 들리브

6) 태림출판사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7)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1918-1922)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8) 이정희(2002), "Emile Jaques-Dalcroze의 Rhythmic solfège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Delibes), 포레(Faure)와 함께 공부를 하였고, 프랑스 국립극장(The Comedie Francaise)의 탈보(Talbot)에게 연극 레슨을 받기도 하였다. 달크로즈에게 있어 스위스의 이론가 리시(Mathis Lussy)와의 정통적인 리듬 수업은 유리드믹스를 창안해 내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1886년에 알제이(Algiers)에서 일하며 유리드믹스 수업에 영향을 주게 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음악 감독을 하며 아랍의 민속 음악과 그 음악들에서 사용되는 불규칙하고 원시적인 리듬에 매료되어 리듬에 대하여 새로이 생각하게 된다.

1887년부터는 비엔나 콘서바토리의 학생이 되어 브루크너(Bruckner)와 작곡 공부를 하였고, 졸업 후 제네바로 돌아가 배우, 가수, 지휘자, 시인, 작곡가, 피아니스트, 민속음악학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1892년 28세가 되던 해에 스위스의 제네바 콘서바토리(Geneva Conservatory)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곳에서 화성학과 솔페즈를 가르치게 되며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기술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음악을 그들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음악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학생들의 문제점으로 이론과 실제연주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음악 학습의 주된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기초적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 연주 이렇게 세 분야를 연계시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독특한 교수법을 창안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리듬활동(rhythmic gymnastics)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1905년 Solothurn Music Festival에서의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그의 교수법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1911년에는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 근교에 있는 헬레라우(Hellerau)에 학교를 세워 세계 각지로부터 그의 교수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을 교육하였다.

1913년 글록(Gluck)의 오페라 “오르페오(Orpheus)”는 달크로즈가 감독하고 유리드믹스로 훈련된 음악가와 무용가들이 헬레라우에서 공연하였는데, 이 일을 통해 달크로즈 교수법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헬레라우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며 활동하던 달크로즈는 제네바로 돌아가야만 했고, 1915년에 달크로즈 인스

티튜트(The Institut Jaques-Dalcroze)를 설립하였다.

제 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스위스가 고립되어 대외적으로 달크로즈 교수법을 알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달크로즈와 그의 교수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달크로즈 교수법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그의 70세 생일에는 46개 국적에 걸쳐 10,500명이나 되는 그의 전수자들이 서명한 책을 선물받기도 하였다.

그의 교수법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에 쓰이고 있으며, 신체 장애자,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이나 성인의 정신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의 교수법은 20세기 음악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 주는 아주 혁신적인 교육법으로 인식되었고,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 오르프(Carl Orff 1895-1982)등의 음악 교육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던 그는 1950년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리드믹스 클래스와 솔페즈 학습을 위해 1,000곡 이상의 노래를 만들었으며, 대표적인 책으로는 <Le Rhythme, la Musique et Education>(1920) [1898년부터 1919년까지 쓰여진 기사를 중심으로 엮은 책],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1930)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쓰여진 기사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 있다.⁹⁾

2) 달크로즈의 교육철학

달크로즈는 인본주의와 아동중심 교육에 바탕을 두었고, 논리적·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¹⁰⁾ 또한,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음악’과 ‘신체표현’을 결합하여 동작과 음악을 연결시키는 음악교육이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보이지 않는 소리(invisible sound)를 보이는 소리(visible sound)로’ 이것이 그의 교수법의 핵심이다. 소리모방(phonomimesis)을 통하여 유리드믹스,

9) 유승지(2001),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 태림출판사, p.5

10) Monica Dale, 유승지 원소연 이소라 최연선 공역(2012),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활동집 I」, 뮤직트리, p.8

솔페즈, 즉흥 연주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된 학습 원리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Eurhythmics), 솔페즈(Solfege), 즉흥 연주(Improvisation)의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음악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들음으로써 음악을 느끼고 음악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¹¹⁾라고 그는 말한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감각들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것에 있다. 음악은 지적이기 이전에 감각적이어야 하고, 음악적 느낌이나 신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독창성은 중시되어야 하며, 음악적 경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교수법에는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클레퍼리드(E. Claparede), 루시(M. Lussy)가 영향을 주었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페스탈로치로부터는 관찰(observation), 실험(experimentation), 추론(reasoning)을 통한 학습,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심정, 기능(head, heart, hand: 사고, 감정, 행위)의 3가지를 위에 두고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인간 본성의 조화적 발전을 이루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클레퍼리드로 부터는 가르치는 과정에 관한 조직적인 접근법의 틀을, 루시에게는 유리드믹스의 기초를 마련해 준 리듬수업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 듀이(John Dewey, 1859-1952)등 동시대 교육 이론가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고,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다중학습모드(multiple leaning modes)’등의 새로운 사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후속세대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음악 개념들을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의 교수법이다.¹²⁾

11) 유승지(2001), 전계서, p5

12) Monica Dale, 전계서, p.8

1892년 달크로즈가 28세가 되던 해에 다양한 경력을 갖게 되었고, 스위스의 제네바 콘서바토리(Geneva Conservatory)의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그곳에서 화성학과 솔페즈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4가지의 문제점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테크닉적으로는 훌륭한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악기를 통해 전달하는 음악적 표현에는 미숙한 것.

둘째, 학생들이 화성학 시간에 화성을 수학 공식 다루듯이 외우고 그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

셋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멜로디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

넷째, 리듬감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연주할 때 리듬 표현이 서투른 것.

그는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학생들은 아주 단순한 흐름 결조차 제 힘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음의 높낮이와 조성, 음악적 억양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화성법에 따라 화음을 쓰고도 화음을 듣지는 못하였고, 매우 간단한 가락의 동형진행이나 화음진행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능적으로 연주하는 방법만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며, 음악의 생성 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없이 음악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¹³⁾

그는 또한 학생들이 리듬형을 연주하는 데는 곤란함이 있는데 걸음을 걷는 것과 같은 신체적 활동에는 아무런 리듬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관찰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있으나 이 본능을 음악적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각각

13)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309

다른 속도를 견제 함으로써 이 개념을 실험했다.¹⁴⁾

달크로즈는 음악의 주된 요소는 흐름의 결이고 모든 음악적 흐름결의 원천은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흐름 결에 기초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고안된 독특한 음악 지도 방법이다.¹⁵⁾

20세기 초 스위스의 달크로즈 인스티튜트(The Jaques-Dalcroze Institute)를 중심으로 달크로즈 수업을 무용 교육으로 착각하여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달크로즈의 음악 철학은 올바로 알려지게 된다.

2. 달크로즈 교수법

달크로즈는 음악과 동작을 연결시키는 음악 교육을 주장하였고, 좋은 듣기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 그의 교수법을 창안했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리듬 감각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고, 청각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기 위해 통합적 음악 학습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왜, 언제, 어떻게 배우는 가’ 등 일련의 과정 전체에 가치를 두며, 음악을 듣기, 보기, 이해하기를 거쳐 신체로 표현해 내는 것에 있다. 또한 음악적인 리듬은 심장박동이나 숨결과 같은 인간 삶의 리듬과 같은 것이며, 모든 예술에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음악체계는 가장 핵심 영역인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는 유리드믹스와, 좋은 귀를 만드는 솔페즈, 창작 능력의 개발에 핵심을 둔 즉흥 연주가 있다. 이 3대 영역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골고루 적용된다. 그의 교수법을 처음 도입한 대상은 가르치고 있던 음악 전공자(대학생)들이었다. 그의 교수법은 악보를 보며 단순히 연주를 하기 보다는 생각과 몸과 느낌을 동시에 발달시키기 때문에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음악성을 계발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4) 찰스R. 호퍼(1984),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51

15) 이흥수(1990), 전계서, p.308

1) 유리드믹스(Eurhythmics)

유리드믹스는 음악적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리듬 교육방법을 지칭하는 말이며, 신체를 통한 음악학습 방법으로 ‘음악에 맞는 리듬동작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Eu’는 좋다(good)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리듬’은 그리스어 ‘리트머스(Rhythmos)’에서 파생된 것으로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리듬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흐름을 뜻하고 수직적·수평적 움직임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음 지문은 그가 유리드믹스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던 이유여, 그가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했던 6가지 질문과 대답이다.

- ① 음악은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 ② 인간은 감정을 어떤 감각 기관으로부터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온몸으로
- ③ 인간은 감정을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
- ④ 인간의 몸을 통해 내적인 감정을 어떻게 외부 세계로 표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세, 제스처,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열렬한 악수, 건방진 얼굴, 소심한 걸음걸이, 작별을 고하는 인사)등을 통해
- ⑤ 인간은 어떤 수단을 통해 내적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

- ⑥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인간의 몸

이 문답들을 통해 우리는 음악 수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학습이 자유로운 신체 표현 능력이라고 느꼈던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¹⁶⁾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서 말하는 ‘리듬’에는 길고 짧음, 또는 빠르고 느림 등의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사용, 무게의 이동에 따른 밸런스,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유리드믹스에서는 악보 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듬이나 귀로 들었던 리듬을 공간상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¹⁷⁾ 소리와 동작의 연계성을 강조한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선행요건 중에서 첫째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며, 둘째는 다양한 기술의 실제 훈련이다. 학생들이 자주 듣는 경험을 통해 음악의 기본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실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달크로즈가 그의 교수법에서 유리드믹스(Eurhythmic)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그가 ‘리듬(Rhythm)이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소보고, 좋은 리듬의 개발이 음악적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적 감각’은 ‘몸의 움직임’과 직결되며, 음악의 리듬감은 몸의 리듬감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적 리듬감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감지하고 리듬을 표현하게 하는 학습은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다. 유리드믹스에서는 신체를 하나의 악기로 보는데, 음악에 맞는 리듬동작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신체의 감각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시키고, 그 느낌을 다시 몸이나 목소리 등의 신체를 이용하거나 악기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창작을 하도록 하고, 음악적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교육 방법이다.

힘의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육체에서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좋

16) 유승지(2001), 전제서, p.10

17) 최연선(2011),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레슨에서의 불규칙 박자 지도방안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p.36~37

은 리듬(Eurhythm)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리듬의 표현은 전적으로 몸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고, 정확한 음악적 표현은 몸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몸의 움직임이 효과적인 리듬 표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표 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의 실제 연주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분석하였는데, 학생들이 경직된 자세로 소리를 예민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리듬은 움직임과 흐름이 없고, 박은 정확히 흘러가나 단조롭게 연주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표 1> 세 가지의 리듬 유형

에이리드미(Arrhythme)	박이 불분명하고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과 흐름이 없는 리듬
어리드미(Errhythme)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박이 진행되지만 단조롭고 기계적인 리듬
유리드미(Eurhythmy)	정확하면서도 공간 속에서의 다양한 박의 흐름을 담고 있는 생명력 있는 리듬

그는 학생들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방법을 연구하였다. ‘유리드미(Eurhythmy)’의 상태로 발전시켜 주기위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걷기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모든 움직임에는 합당한 움직임(Movement)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 음악을 연주할 때 뛰어난 감수성을 보인 학생들이 걷기 동작에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몸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며, 움직임에 합당한 음악이 있고, 좋은 리듬(Eurhythmy)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음악과 몸동작(Movement)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리드믹스(Eurhythmic)이다.

아브람슨(Robert M. Abramson)¹⁸⁾은 <표 2>와 같이 3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좋은 리듬(Eurhythm)을 가지기 위해 단계적으로 학습해야 할 리듬요소라고 제시하였다.

<표 2> 리듬과 관계된 요소 34항목¹⁹⁾

1	시간(Time), 공간(Space), 힘(Energy), 무게(Weight), 균형(Balance)	18	확대(Augmentation)
2	규칙적인 박(Regular Beat)	19	리드믹 대위법(Rhythmic Counterpoint)
3	빠르기(Tempo)	20	당김음(Syncopation)
4	점차적으로 변하는 빠르기(Nuances of Tempo: Accelerando, Ritardando)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One-Voice Forms with Accompaniment)
5	셈여림(Dynamics: All Levels of Energy and Weight)	22	대위적 형식(Contrapuntal Forms)
6	점차적으로 변하는 셈여림 (Nuances of Dynamics: Cresc., Dim., Subito Piano, Subito Forte)	23	카논(Canon: Interrupted, Continuous)
7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24	푸가(Fugue)
8	악센트(metric, agogic, dynamic, tonic, ornamental, harmonic accents)	25	보충 리듬(Complementary Rhythms)
9	박자(Meter: Simple, Straight; Compound, Curved))	26	혼합 마디(Unequal Measure)
10	쉼표(Rests: Active Silence; Qualities of Silence)	27	혼합 박(Unequal Beat)
11	음의 길이(Duration)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Unequal Measure & Unequal beat)
12	음의 분할(Subdivision)	29	복합 박자(Polymetrics)
13	패턴(pattern)	30	복합 리듬(Polyrhythmics)
14	내재된 박(Intrinsic beat)	31	헤미올라(Hemiola)
15	프레이즈(Phrase)	32	리듬적 변화(Rhythmic Transformation)
16	단선율 형식(One-Voice Forms: Motive, Phrase, Period, Theme 등)	33	12음 나누기(Divisions of Twelve)
17	축소(Diminution)	34	루마토(Rubato)

18) 줄리아드 달크로즈 인스티튜트 주임교수(1928-2008)

19)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1), 전계서, p.226

이러한 리듬은 경우에 따라 위의 요소들이 같이 작용 되거나, 대조되어진다. 아브람슨은 소리를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을 소리 모방(Phonomimesis)이라고 칭하였으며, 학생들은 유리드믹스를 통해 34가지의 음악 개념들을 배우면서 “보이지 않는 소리(Invisble Sound)를 보이는 소리(Visible Sound)”로 바꾸는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는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외에 제6감-근육 운동 지각 능력(Kinesthetic Sense)을 발달시켜야 하고, 근육 운동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유리드믹스의 과정이다”라고 말하였다.

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 수업에서는 음악적인 소리를 식별해 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듣기 능력 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육 운동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휘하기, 걷기, 손뼉 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차별화되는데, 이 활동들은 유리드믹스 수업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동작들이다.

그는 음악 훈련을 개선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심리학자인 클레페레드(Edouard Claparede, 1832-1871)의 조언과 협력을 받아 ‘교사들이 학생들의 주목을 얻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적 게임을 고안해냈다.²⁰⁾

유리드믹스 게임의 수업 형태는 빠르게 반응하기(Quick Reaction), 따라 하기(Follow), 보충 게임(Replacement Exercises), 메아리 모방(Interrupted Canon), 중복 모방(Continuous Canon)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며, 음악, 시, 움직임을 포함한 게임은 청각, 시각, 촉각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뇌와 중앙신경체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듯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게임을 통하여 리듬의 학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과 순발력, 사고력, 표현력 등의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²¹⁾

20) Julia Schnebly-Black, Stephen F.Moore, 이예스더 역(2008), 「내면의 리듬」, 상지원, p.67

21) Robert M. Abramson, 유승지 옮김(2001),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위한 리듬게임Ⅱ」, 태림출판사, p.6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게임의 수업의 형태를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게임의 수업 형태

빠르게 반응하기 (Quick Reaction)	학생들이 교사의 연주를 듣고 그 지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연주에 집중을 해야 하므로 음악을 듣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내청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 하기 (Follow)	같은 리듬패턴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연주하면, 연주를 잘 듣고 정확하게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청음 능력이 발달된다.
보충 게임 (Replacement Exercises)	주어진 리듬에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집어넣어 연주를 하면 학생은 그 연주에 합당한 움직임은 한다. 음악적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며 음악적 표현력을 신장시킨다.
메아리 모방 (Interrupted Canon)	교사가 리듬패턴을 표현하면 학생이 이것을 기억하고 따라하는데, 이를 통해 암기력과 집중력을 키워준다.
중복 모방 (Continuous Canon)	교사가 한 마디, 동기 혹은 한 프레이즈를 먼저 연주하면, 학생은 앞서 연주된 것을 기억해 따라한다. 동시에 새로 연주하는 패턴을 기억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달크로즈 수업에서 사용되는 동작은 크게 <표 4>와 같이 이동 동작과 비 이동 동작으로 나누어진다. 이동 동작은 자유롭게 공간을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뜻하고, 비 이동 동작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움직이며 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뜻한다. 이 움직임을 통해 시간(Time)-공간(Space)-힘(Energy)의 변화를 표현한다.

<표 4> 이동 동작과 비 이동 동작

이동 동작 (Locomoter Movement)	비 이동 동작 (Non-Locomoter Movement)
걷기(Walking) 달리기(Running) 스킵(Skipping) 갈lop(Galloping) 기기(Creeping) 뛰기(Jumping) 양감질(Hopping) 미끄러지기(Sliding)	좌우로 흔들기(Swinging) 지휘하기(Conducting) 뻗기(Stretching) 구부리기(Bending) 잡아 당기기(Pulling) 밀기(Pushing) 말하기(Speaking) 노래하기(Singing)

20세기 초 교육에 있어 움직임의 중요성을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강조하였고, 무용에 있어서도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개척하게 된다. 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라는 그의 새로운 교수법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음악 장르에 도입시켜 소개하였고, 이 움직임의 영역은 무용과 교육에 있어 새로운 의미로 발전되고 있다.²²⁾ 유리드믹스 수업은 처음에 간단하고 쉽게 시작되며 점점 심화되는 나선형 교육 방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상징들을 먼저 알기 전에 몸으로 먼저 경험함으로써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2) 유승지(2001), 전계서, p.21

2) 솔페즈(Solfège)

달크로즈식 솔페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음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솔페즈(Solfège)의 일반적 목적은 절대음감 훈련이며, 사전적 뜻은 ‘악보를 보고 계이름을 부르기’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달크로즈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솔페즈 교육은 조성과 음질, 화성을 파악하는 능력과 리듬(Rhythm), 음의 높낮이(Pitch)를 구별하는 능력을 동시에 계발시켜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듣기 능력은, 외청(Listening)능력과 내청(Hearing)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청능력은 들리는 소리 그 자체를 말하며, 내청능력은 들리는 소리를 인지하고 그 안에 내재된 소리의 질서를 파악하고, 귀로는 소리를 예민하게 분석하여 음악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달크로즈식 솔페즈 교육은 ‘내청 능력’을 기르는데 좋은 교육 방법인데, 실제 수업에서는 하나의 악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되어 불러 보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비교적 정확한 음을 기억하여 악보를 읽고 바른 음정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준다. 달크로즈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음정을 듣는 연습, 악곡의 분석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작곡가의 의도를 찾아내어 창의적인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해 내는 등의 자질을 길러 주기를 원했다. 또한 아이들이 절대 음감을 갖기 위해서는 악기를 먼저 배운 후 시창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시기는 이를 수록 좋다고 하였다.

솔페즈 수업에서도 필요에 의해 다양한 교구들과 자료, 유리드믹스 활동 또는 게임을 활용한 접근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이론 또는, 음정을 익히게 된다. 이 수업의 특징은 몸동작과 선율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이 때, 몸동작은 호흡(상행: 숨 들이쉬기/ 하행: 숨 내쉬기)과 근육의 변화(상행 멜로디: 근육 움직임 확대/ 하행 멜로디: 근육의 이완)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대뇌기능과 지능을 좌우하는 소뇌 기능이 동시에 발달하게 된다.

달크로즈 수업의 솔페즈 활동은 두 가지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데 <표 5>와 같다.

<표 5> 솔페즈의 2가지 유형

도-도 음계 (Do-Do Scale)	‘가운데 도~ 높은 도’의 편안한 음역 안에서 모든 조성을 부를 수 있다.
폴리코드 (Polychords)	2도 음정 : 다이 코드(Dichord) 3도 음정 : 트라이 코드(Trichord) 4도 음정 : 테트라 코드(Tetrachord) 5도 음정 : 펜타 코드(Pentachord) 6도 음정 : 헥사 코드(Hexachord) 7도 음정 : 셉타 코드(Septa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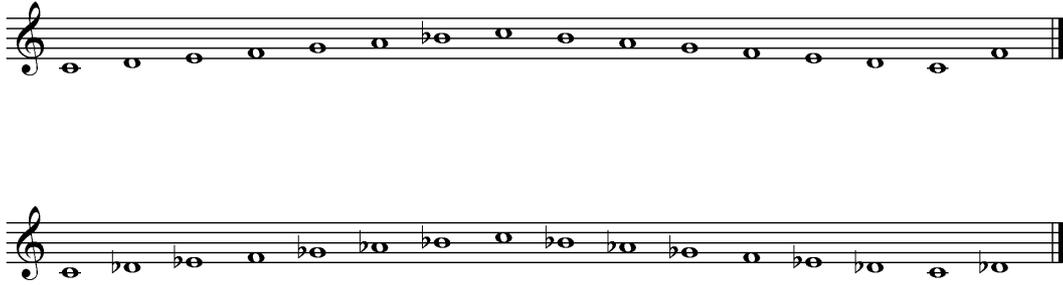
달크로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학생들이 충분한 조옮김을 경험하지 못한 것.

둘째. 조옮김하여 시창할 때 음역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조를 목소리로 경험하지 못한 점.

그래서 그는 ‘도-도 음계(Do-Do Scale) 솔페즈’를 고안해내게 된다. 다장조(가운데 도~ 높은 도)음계 안에서 모든 조성을 부를 수 있는 방법 인데, 학생들이 편안한 음역에서 자연스러운 조옮김을 경험할 수 있고, 조성이 변화됨에 따라 음색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조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폴리코드(Polychords) 솔페즈’를 통해서 각 음정들을 익히게 하였는데, ‘도-도 음계’와 ‘폴리코드를 통한’ 솔페즈 교수법의 예를 <악보 1>과 <악보 2>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 ‘도-도’음계를 통한 솔페즈



<악보 2> ‘폴리코드-다이코드(Dichord)’ 익히기 솔페즈



솔페즈 수업을 통해 외청능력의 발달과 내청능력의 발달로 인하여 청각각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음의 높고 낮음과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익히게 되며, 시창과 청음, 이론 등이 통합되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듣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을 높여주게 된다.

3) 즉흥 연주(Improvisation)

즉흥 연주는 주어진 패턴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활용되며, 언어, 움직임, 노래 등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된다. 주로 피아노가 사용되는데, 다양한 표현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테니스공이 주로 사용되며, 학생들은 테니스공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건반에서 즉흥으로 표현해본다.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피아노 즉흥 연주라고 하면 부담을 갖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접근을 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제라면 먼저 몸으로 표현해본 후, 그 동작들을 소리로 내보고 피아노 위에서 움직임을 소리로 표현해보면 된다. 한 학생이 일어났다 앉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간단한 소리로 표현해본 후, 테니스공으로 하얀 건반에서 상행-하행 음을 글리산도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즉흥 연주의 단계는 목소리나 신체 표현 등을 통한 모방-응용 - 즉흥표현 순으로 적용하며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리듬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빠르기, 강세, 음높이, 음계, 화음 등 리듬 혹은 가락에 관련된 요소들을 익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산출되어 창의력을 키워주게 된다. 달크로즈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즉흥 연주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였고,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즉흥 연주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 해석 능력, 테크닉 계발과 청음 능력을 발달시켰다.²³⁾

이렇듯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즉흥 연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리듬과 가락에 관련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며, 학생들은 상황에 맞는 음악과 동작들을 즉흥으로 만들어 내어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23) Ibid., p.28

Ⅲ.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학습지도안

1. 학습지도안 내용

<표 6> 학습지도안 형식

단 원 명				차시	
학 습 목 표					
준 비 물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지도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5분)	수업 분위 기 조성				
전 개 (40분)	학습 지도 내용				
정 리 (5분)	정 리				

학습지도안은 <표 6>과 같은 형식을 써서 본 연구자가 음악교과서에서 선택하여 3차시는 수업지도안을, 4차시에는 평가지도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학습 목표에서는 주제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리듬을 특징으로 잡아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달크로즈의 3대 영역인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가 서로 연계되어 수업이 이루어 졌다. 학생들이 달크로즈 수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시가 늘어나도 비슷한 난이도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1차시의 주제는 ‘박’이다. ‘박’이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진 맥박이며 그 간격의 길이에 따라서 템포가 정해진다. 그리고 ‘박’은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한 마디 안에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달크로즈는 크루시스(Crusis : 힘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긴장이 해소되는 첫 번째 박), 메타크루시스(Metacrusis : 첫 번째 박의 반동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박), 아나크루시스(Anacrusis : 다시 첫 번째 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이 모아지고 방향은 위로 향하는 세 번째 박)로 박을 호칭하며 힘의 긴장과 이완을 설명하였다.²⁴⁾ 박을 듣고, 세고, 느끼고, 움직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모든 리듬 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시에서는 4분음표와 8분음표의 길이를 아는 것인데, 8분음표는 4분음표를 세분화 시킨 음표임을 활동을 통해서 인지시켜준다. 박은 짧은(빠른) 박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짧은(빠른)박이 합쳐져서 긴박이 형성되기도 한다. 박을 나누어서 더욱 빠른 박으로 만드는 과정을 박의 세분화라고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리듬 패턴이 만들어진다.

3차시에서 썸여림이 새로 나오는데, 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의력, 협동심, 집중력,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썸여림은 다양한 레벨의 에너지 사용에 의해 변화되는 음악이나 움직임의 변화를 말하는데, 썸여림이 커지면 몸도 커지고 공간의 사용도 넓어지며 사용되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또한 썸여림이 작아지면 몸과 공간, 사용되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는 활동을 한다.²⁵⁾

24) Ibid., p.5

25) Robert M. Abramson, 유승지 옮김(2001), 전계서, p.15

1) 도입

도입에서는 각 차시마다 주제에 맞게 간단한 게임이나 자기소개를 통해 접근한다.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렵다고만 생각되기 때문에 도입부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잘 알고 있거나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1차시에서는 ‘박’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 박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소개 게임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게임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박의 흐름과 강세를 몸을 움직이며 표현해줘야 한다. 또한 여기서 4박에 맞춰 활동을 하는데, -무릎, 손뺑, 오른쪽, 왼쪽-이 흐르고 있음을 몸을 들썩이며 전달 할 사람 쪽으로 몸을 이동하며 박을 전달해준다.

2차시에서는 ‘4분쉽표’와 ‘4분음표·8분음표’의 박의 길이를 아는 것이다. 리듬을 익히고, 박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분쉽표의 활동은 전개부에서 하였다. 2차시에서도 자기소개 게임을 하였는데,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적절히 조합시켜 진행하였다. 이 방법은 1차시 지도안의 설명에 표로 제시하였다.

3차시의 주제는 ‘4분음표-8분음표’와 ‘셈여림’이다.

주제곡 <사랑해요>에서는 ‘♪♪♪♪’의 리듬이 주를 이룬다. 음표들을 알기 위해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하는데, 1차시의 도입부에서 했던 활동을 하며(무릎-손뺑-오른쪽-왼쪽) 1박과 2박은 쉽표, 3박과 4박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단어로 말한다. 이 활동을 통해 박의 흐름이 쉽표에서도 일정하게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8분음표+8분음표=4분음표’임을 몸으로 먼저 익히게 된다.

이렇듯이 도입부에서는 간단한 준비 학습 활동을 통하여 그 날의 주제를 상징이 아닌 몸으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 먼저 익히게 한다. 본 연구에 쓰인 학습지도 안에서는 흥미 유발을 위하여 게임을 통하여 학습하였지만, 생활 속의 활동이나 모방을 통한 활동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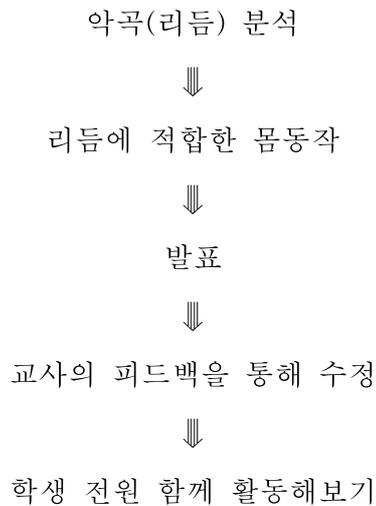
2) 전개

전개부에서는 유리드믹스-솔페즈-즉흥연주가 서로 연계되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도입부에서 익힌 주제학습을 통해 전개부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1) 유리드믹스

순간적인 반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유리드믹스 수업에서는 원형으로 형태를 갖춘 후 손-리듬, 박-발 혹은 발-리듬, 손-발의 활동을 하며 리듬을 익히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몸동작을 접목시켜 활동을 해 보았다.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제곡을 익힌 후 악곡에 맞는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표현되었다.

<그림 1> 음표 활동 유리드믹스

4분음표 걷기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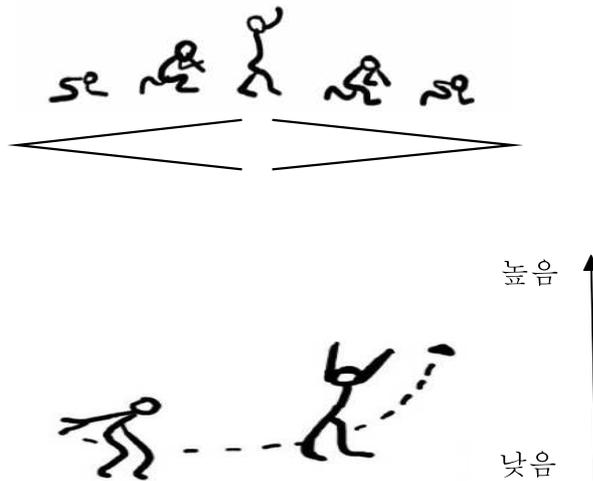


8분음표 뛰기동작



<그림 1>에서는 4분음표 걷기동작의 그림처럼 4분음표를 1박의 길이를 채워서 걷기를 하였고, 8분음표 걷기동작의 그림처럼 8분음표는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8분음표라고 하여 무조건 빠르게 것이 아니라, 1박 안에서 2박으로 쪼개어 일정하게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림 2> 셈여림과 음높이에 따른 유리드믹스



<그림 2>의 윗부분 그림은 학생들이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를 동작으로 표현

한 모습이다. 아랫부분의 그림은 사람이 아래(낮은 음)에서 위(높은 음)로 이동함을 표현한 것인데, 음이 도약할 때도 이 방법이 사용 된다. 단, 여기서 도약이라고 해서 노래가 약-강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아래쪽 오른편 그림은 솔페즈 시간에서도 많이 사용된 방법인데, 팔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손가락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며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 활동에 사용되었다.

(2) 솔페즈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수업에서는 교사의 소리를 들으며 표현해 보았고, 내청과 외청을 경험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수업에서는 피아노를 치거나 교사가 먼저 유리드믹스를 통하여 멜로디를 먼저 불러주면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익힌다. 이 때, 학생들은 멜로디를 손가락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거나, 쉼표를 적용하여 내청을 경험하였다. 또한 도-도 솔페즈를 통하여 조성을 먼저 익힌 후, 주제곡을 경험하여 올림표와 내림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1차시에는 차례로 흘러가는 음과 동음을 익혀 주제곡을 습득하게 하였고, 2차시에서는 쉼표를 적용하여 내청훈련을 하였다. 또한 돌림노래로 불러보며 다른 팀과 서로 소리를 들어보는 훈련을 하였다. 3차시에서는 ‘도-도 솔페즈’를 경험하여 가장조의 조성을 익혔고, 주제곡을 프레이즈로 나누어 들려줘서 음 높이를 구별하고 쉼표를 적용시켜 표현하는 법을 훈련하였다.

(3) 즉흥 연주

즉흥 연주는 주로 말 리듬을 적용시켜 진행 되었다. 피아노로 즉흥연주를 하는 차시에는 피아노를 못 치는 학생이 많아 테니스공을 이용하여 black key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고안하였다. 여기서는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즉흥연주 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음악을 듣고 각자 움직임(몸동작)으로 표현하여 전 학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3) 정리

정리에서는 그날 학습 목표 내용을 3대 영역 중에서 두 가지영역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한 가지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차시의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고, 각 상징들을 다시 정리를 해 본다.

2. 실제 학습지도안

1) 1차시 학습지도안

단 원 명		환희의 송가		차시	1
학 습 목 표		1. 일정한 템포에서 흐르는 규칙적인 박을 알 수 있다. 2. 차례로 움직이는 음과 머무르는 음을 구별할 수 있다.			
준 비 물		피아노, ppt, 리듬 막대, 제기, 테니스 공, 보드, 보드마카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지도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5분)	수업 분위 기 조성	-무릎치기(강박)와 손뼉치기 (약박)를 통해 일정 박을 느끼게 한 후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교사의 몸동작을 보며 일정 박을 느끼며 자기소개를 한다.	-몸의 움직임을 크게 보여준다.	
전 개 (40분)	학습 지도 내용	-원으로 둘러 앉아 옆 사람에게 테니스 공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시어를 제시한다. -즉흥 연주를 통하여 걸기 음악을 쳐준다. 익숙해지면 지령을 붙여 빨리 걷기와 느리게 걷기를 경험하게 해 준다. -차례가기와 머무르는 음을 쳐준 후 따라 부르도록 한다. -무릎·손뼉 치기를 하며 환희의 송가를 불러준다. -환희의 송가에 나오는 리듬을 칠판에 적고, 언어를 통한 즉흥 연주를 시킨다. -발*박 / 손*리듬을 치며 환희의 송가를 불러준다.	-교사의 지시어를 잘 듣고 옆 사람에게 테니스공을 전달한다. -교사의 연주를 들으며 걸다가 지령을 듣고 맞게 움직인다. -교사가 쳐주는 피아노 음을 따라 부르며 손가락으로 표현해 본다. -무릎·손뼉 치기를 하며 교사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칠판에 그려진 리듬에 맞게 말을 만들어 걸어본다. -교사를 보며 발과 손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러본다.	-리듬 막대를 쳐주며 일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빠르지 않게 쳐준다 -학생의 의견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시작한다.	
정 리 (5분)	정 리	-제기를 나눠준 후 올라가는 음과 내려오는 음, 머무르는 음을 피아노로 쳐준다.	-제기를 갖고 교사가 쳐주는 음을 표현해 본다.		

<악보 3> 1차시 주제곡

환희의 송가

실러 작사/주대창 역사/L.v. 베토벤 작곡

아 름 다 운 신 의 불 꽃 낙 원 의 딸 환 희 여
우 리 함 께 다 다 르 네 열 광 하 며 그 곳 에
그 신 비 가 연 결 - 하 네 관 습 - 따 라 나 뉘 것 모
- 든 사 람 형 제 되 네 아 누 한 그 날 게 에

1차시에서의 주제는 ‘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박을 1차시의 수업으로 정한 후 주제곡을 선정하였다.

도입에서는 박을 느끼기 위해 자기소개 게임을 접목시켰다. 우선 원을 만들어 앉은 후 4박 기준으로 -무릎, 손뼉, 오른쪽, 왼쪽- 간단한 동작을 통하여 박의 흐름을 느낀다. 반복으로 인하여 충분히 박의 흐름이 몸에 베이면 교사가 먼저 소개를 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몸의 움직임을 보고 박을 느낄 수 있도록 몸동작은 크게 한다. 이 때, 교사는 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유의하며 지도한다.

학생들의 소개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어가 아닌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리들 혹은 의성어, 의태어로 4글자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첫 시간이기 때 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할 시간을 준 후, 4째 박은 오른쪽에 앉은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에게 박을 전달함을 인지시킨다. 한 바퀴가 돌고 나면, 교사는 준비된 테니스공으로 4박을 표현하며 바로 전에 자신이 했던 단어를 말하며 첫 박이 시작될 때 옆 사람에게 테니스공을 넘긴다.

예를 들면, <표 7>에서처럼 A학생이 테니스공을 4박에 맞춰 땅/땅/땅/넘김 - ‘뽐/뽐/뽐/빠!’라고 말 리듬으로 표현하며 넷째 박에 ‘빠’라고 할 때 테니스공을 옆 사람에게 건넨다. 이어 받는 사람은 첫 박에 받고, 둘째 박과 셋째 박에는 자신이 공으로 터치하고 싶은 곳에, 넷째 박에는 옆 사람에게 넘기기를 하며 단어를 말로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말로 하는 즉흥 연주가 되는 것이다.

<표 7> 말로 하는 즉흥 연주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 ♪ ♪ ♪	♪ ♪ ♪ ♪	♪ ♪ ♪ ♪	…
뽐 뽐 뽐 빠	획 뽐 뽐 뿌	뽐 뚜 뽐 빠	…
땅 땅 땅 (넘김)	(받고)코 눈(넘김)	(받고)손 귀 (넘김)	…

위의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교사는 피아노로 이동한 뒤 걷기 음악을 쳐준다. 음악을 들으며 박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교사가 즉흥 연주를 할 때 왼손이 걷기에 적합하게 연주되어야 한다. 실제 수업 시간에 쓰였던 이동 동작 음악은 <부록 1>과 <부록 2>에 실린 악보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걷기 활동이 끝나면 그 다음은 교사의 지시어를 듣고 4분음표 걷기와 8분음표 달리기를 경험한다.

걷기 활동이 끝나면 다시 원으로 둘러앉아 교사가 피아노로 쳐주는 음을 듣고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따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음 높이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피아노로 차례 올라가기로 ‘도레미파솔’을 치면 학생들은 ‘따리리리루’로 음을 부르고 손가락은 올라가는 선을 그리면 된다. 하행 음은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고 같은 음을 쳐 주는 경우 ‘도-도-’를 치면 ‘리-리-’를 부르며 손가락으로는 ‘-’자를 그리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무릎-손뽕-손뽕-손뽕’을 치며 ‘강-약-중강-약’을 표현하며 환희의 송가를 불러준다. 이 때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2마디 단위나 4마디 단위로 프레이즈를 나눠서 불러준다. 가사를 빨리 외워야 하는 경우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노래 가사를 인지시켜주면 훨씬 빠르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환희의 송가에 자주 나오는 리듬을 칠판에 적어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리듬에 맞게 단어를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앉은 자리에서 리듬에 맞게 박수를 치며 읽어본다. 이 활동이 익숙해지면 일어나서 발로는 4박을 걷고 손으로는 리듬에 맞게 박수로 친다. 손-발 활동이 익숙해지면 칠판에 적어둔 단어를 걸으며 읽는 활동을 한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면, 교사가 먼저 2마디 단위로 움직임 활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이 따라한다. 교사와의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피아노로 환희의 송가를 쳐주고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다시 한 번 활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기를 나눠준 후 올라가는 음, 내려가는 음, 머무르는 음을 제기로 먼저 표현해 본 후 환희의 송가에 맞춰 올라가는 음, 내려가는 음, 머무르는 음을 제기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2) 2차시 학습지도안

단 원 명		꿀밤나무 밑에서		차시	2
학 습 목 표		1. 마지막 박에서의 4분쉽표의 쓰임을 정확히 안다. 2. 4분음표와 8분음표의 박의 길이를 정확히 안다.			
준 비 물		피아노, ppt, 리듬 막대, 스카프, 테니스 공, 보드, 보드마카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지도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5분)	수업 분위기 조성	-다양한 신체 짚기를 통해 자기소개를 한다. (4분음표-8분음표)	-교사의 몸동작을 따라한 후 자기 순서가 되면 본인이 리듬을 선택하여 소개를 한다.	-몸의 움직임을 크게 보여준다.	
전 개 (40분)	학습 지도 내용	-2명씩 짝을 지어 앉고 옆 사람에게 테니스 공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시어를 제시한다. -리듬 막대를 쳐 주며 쉽표가 섞인 4/4박자 걸기를 경험하게 해 준다. -발로 리듬을 걸으며 꿀밤나무를 불러준다. -제자리에 앉아 무릎손뽀치기를 하며 4분쉽표를 둘째 박에 넣어 내칭훈련을 시킨다. -(1),(2),(3),(4)팀을 짝 후 돌림 노래로 불러본다. -위의 팀별로 음 높이에 맞게 몸 동작으로 표현해 본다.	-교사의 지시어를 잘 듣고 짝에게 테니스공을 전달한다. -교사의 연주를 들은 후 맞게 움직인다. -교사를 보며 따라 걸으며 노래를 불러본다. -무릎·손뽀 치기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팀별로 노래를 불러보며 다른 팀의 소리도 함께 들어본다. -음 높낮이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몸동작을 만들어 본다.	-리듬 막대를 쳐주며 박의 길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익숙해지면 쉽표를 아무 박에나 넣는다.	
정 리 (5분)	정리	-스카프를 나눠준 후 박의 길이에 맞게 스카프로 표현해보도록 지시한다.	-스카프를 갖고 교사가 쳐주는 음 길이를 표현해 본다.		

<표 8> 말 리듬 예시

	
나 는야 0 0 0	나는나는 흥 길동

전개부로 들어가며 도입부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2명씩 짝을 지어 1박~ 1박 반까지는 본인이 갖고 있고, 마지막 박에 짝에게 전달한다. 만약 A학생이 를 택하고, B학생이  리듬을 택했다면, <  - 땅땅 굴리기 /  - 팔 땅굴리기 > 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4분음표의 길이와 8분음표의 길이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에서 A학생이 8분음표의 길이에 맞게 바닥을 짧게 친 후, 1박의 길이에 맞게 천천히 굴려준다. 공을 전달받은 B학생이 4분음표에서 팔을 선택했다면 어깨에서 손목까지 1박의 길이에 맞게 쓸어 내리고 8분음표의 길이에 맞도록 땅을 한번 짧게 친 후, 반박의 길이에 맞춰 빨리 굴려서 짝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에는 4분음표와 8분음표, 4분쉼표를 추가하여 4박에 맞게 학생들이 칠판에 표기한다. 교사가 먼저 리듬막대로 4박을 일정하게 치며, 발로는 리듬을 걷고 그 리듬에 맞춰 언어를 선택하여 같이 표현하면, 바로 이어서 학생들이 교사의 활동을 따라한다. 이어 학생 한 명이 활동을 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따라해 본다. 만약 A학생이 표기한 리듬을 선택하였다면, 리듬막대(혹은 손뼉)를 치며 말 리듬을 덧붙여 <  - 오 원오 원오 멈춤-뿌 뽀뽀 뽀뽀 (췌) > 걷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쉼표에서 멈춤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쉼표는 소리만 멈췄을 뿐 박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발은 멈추되 상체는 늘려주거나 오른쪽 방향 혹은 왼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여 박의 흐름을 표현해준다. 충분히 박의 흐름을 몸으로 익혔다면 교사가 발로 리듬을 걸으며 꿀밤나무를 2마디 단위 혹은 4마디 단위로 프레이즈를 나누어 불러주고 학생을 바로 따라서 걸으며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으로 다시 동그랗게 앉아 4박에 맞춰 ‘무릎-손뼉-손뼉-손뼉’을 치며 노래를 다시 불러본다. 노래가 익숙해졌다면, 둘째 박에 4분쉼표를 넣어 내청훈련을 한다.

<표 10>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앞에서 나눈 조 별로 (1)번 프레이즈에서는 원을 이루어 점점 일어서며 동시에 잡은 손은 점점 커지게 크레센도로 한 마디를 표현했고, 다시 잡은 손들을 가운데로 모아 점점 앉으며 디미누엔도로 한 마디를 표현하였다. 이어 (2)번 프레이즈에서는, 차례가기 에서는 팔을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음을 표현하다가 ‘솔-도(4도)’에서는 점프를 하여 도약 음을 표현하고, 넷째 마디에서는 음 높이에 맞게 상체를 상·하로 움직여 표현하였다. (3)번 프레이즈에서는, 같은 음에서는 발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건너 내려가는 음에서는 왼안으로 이동한 후, (3)번 짝수마디(6번째) 마디에서 연속 8분음표 에서는 제자리에서 쿵쿵쿵쿵 튼 후, 한 발 왼 안으로 이동하며 쉼표에서는 박이 흐름을 상체로 살짝 올려 표현하였다. (4)번 프레이즈에서는 (1)번의 프레이즈와 같지만 몸 전체를 앉거나 일어서지 않고, 팔로 했던 동작들만 다시 반복 하였다.

정리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스카프를 나눠준 후 각 음표의 길이에 맞는 활동을 정할 시간을 준다. 각자 활동이 다 정해졌으면, 교사는 주제곡을 피아노로 연주해주고 학생들은 리듬에 맞게 활동을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3) 3차시 학습지도안

단 원 명		사랑해요		차시	3
학 습 목 표		1. 4분음표-8분음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 음의 높낮이에 따라 셈여림을 표현할 수 있다.			
준 비 물		피아노, ppt, 리듬 막대, 쫄쫄이 스카프, 테니스 공, 보드, 보드마카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지도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5분)	수업 분위 기 조성	-말 잇기 게임을 통하여 리듬을 익힌다.	-예비박이 흐르는 동안 단어를 생각한 후 대답을 못하면 뒤로 빠진다.	-마지막 박에 단어를 말한다.	
전 개 (40분)	학습 지도 내용	-철관에 음표를 그린 후 발-박, 손-리듬/ 손-박, 발-리듬 활동을 한 후 4박자의 지휘를 하며 말하기를 연습시킨다. -뛰기 음악을 쳐주며 움직임을 유도한다. -도-도 음계의 솔페즈를 통해 가장조의 구성을 익혀준다 -본 곡의 부분 부분을 쳐주며 음 높이를 구분 시킨다. -올라가는 음에서는 크레센도 내려가는 음에서는 디미누엔도로 치며 음의크기를 구별 시킨다. -팀을 나누어 프레이즈(phrase) 별로 간단한 코레오그래피 활동을 해 본다.	-손, 발 활동을 하며 박의 흐름을 몸으로 느낀 후, 4박자에 맞춰 지휘를 하며 교사의 지시를 듣고 활동을 한다. -교사의 연주를 들으며 음악에 맞게 움직인다. -교사가 쳐주는 음을 듣고 음을 따라 불러본다. -교사가 쳐주는 피아노 음을 따라 부르며 손가락으로 표현해 본다. -팀별 대표가 즉흥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듣고 몸으로 표현해 본다. -셈여림을 들으며 손으로 크기를 표현해 본다.	-4박자의 지휘가 익숙해진 후, 걸기를 시작한다. -쫄쫄이 스카프로 셈여림의 변화를 표현해 본다.	
정 리 (5분)	정 리	-한 명씩 돌아가며 테니스 공으로 8분음표와 4분음표를 사용하여 Black key 즉흥연주를 한다.	-교사의 즉흥 연주에 이어 리듬은 마음대로 하여 검은 건반에서 즉흥 연주를 해본다.		

<악보 5> 3차시 주제곡

사랑해요

김태훈 작사/H.C. 워크 작곡

문득 스치는 기억에 머물러 그대 이름을 부르면 말없이
 이 그대는 미소로 답하죠 내 목소릴 듣나 봐요 머물
 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잊혀져 사라진 줄만 알았는 데 그
 대와 나 그 시절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죠

3차시의 주제는 4분음표-8분음표와 쉼여림이다. 2차시에서 연속 8분음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음표의 흐름이 몸에 익힌 후라 리듬이 몰리지 않았다. 이 곡에서는 한 마디 안에 ‘♪♪♪♪’의 리듬이 주를 이룬다. 강박과 중강박에서는 4분음표가, 약박에서는 한 박 안에 연속8분음표가 나온다.

도입부에서 주제 음표를 알기 위해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하는데, 원형 대열로 앉아 한명씩 돌아가며 1차시의 도입부에서 했던 활동을 하며(무릎-손뼉-오른쪽-왼쪽) <표 11>과 같이 1박과 2박은 쉼표 / 3박과 4박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리듬에 맞춰 단어로 말한다. 자기 순서에서 대답을 못 하면 뒤로 빠진다.

<표 11> 음표 게임 예시

A학생				B학생			
무릎	손뼉	오른쪽	왼쪽	무릎	손뼉	오른쪽	왼쪽
♪	♪	♪♪	♪	♪	♪	♪	♪♪
ㄷ	ㄷ	신발	장	ㄷ	ㄷ	ㄷ	버섯

위의 활동이 끝나면 리듬은 칠판에 있는 리듬 중 아무거나 택하고,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 중 하나를 택해서 셈여림을 표현 게임을 하는데 <표 12>와 같은 방법으로 해 본다.

<표 12> 셈여림 게임 예시

A학생	B학생
♪ ♪ ♪ ♪	♪ ♪ ♪ ♪
난 점점 커져 요	나 는 작게 작게
팔을 점점 크게 벌린다.	몸을 점점 바닥으로 붙인다.

전개부에서는 4/4박자에 맞춰서 학생들이 칠판에 리듬을 표기해본 후, 칠판을 보며 모든 리듬을 한 번씩 읽어본다. 읽기가 끝나면 발-박, 손-리듬 활동을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으로 바뀌서 발-리듬, 손-박 활동을 해 본다. 박의 흐름이 몸에 익숙해졌으면, 제자리에서 4번의 박수를 치며 팔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다시 설명하자면, 왼쪽-강박/ 왼쪽 중앙-약박/ 오른쪽 중앙-중강/ 오른쪽-약박을 경험하며 팔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박자의 지휘를 먼저 해 보는데, 발로 리듬을 걸으며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손을 똑같이 쓰도록 한다. 본 연구자는 지휘의 방법을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II p. 106」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새의 날개짓을 흉내내어 적용하였는데, 첫째 박에서는 날개를 내리고(양팔을 상→하로 이동한다), 둘째 박에서 날개를 접은 후(양팔을 접는다), 셋째 박에서는 날개를 펼쳐서(양팔을 펴준다), 넷째 박에서는 날개를 위로(양팔을 하→상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으로 발-리듬, 손-지휘를 하며 다시 한 번 활동해본다. 처음 하는 활동은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교사는 박의 흐름이 일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리듬막대를 쳐준다.

다음으로 걷기·뛰기를 경험해 보는데 걷기에서는 왼손을 4분음표로 걷기를 유도하고, 뛰기에서는 8분음표를 사용하여 뛰기를 유도한다. 본 수업에 사용한 악보는 <부록 1>과 <부록 2>를 참고하면 된다. 도입에서 4분음표와 8분음표를

경험 하였지만, 학생들이 다른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의 길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충분히 하였다면, 자리에 앉아서 도-도 솔페즈를 통해서 가장조의 조성을 익혀준다. <악보 6>과 같이 처음은 도로 시작하여 다장조 (C Major)로上行하고, 하행할 때는 가장조(A Major)로 하행한다. 이 때 마지막음은 가장조의 으뜸음인 ‘라’음으로 끝나야 한다.上行은 C-D-E-F-G-A-B-C순서로 피아노를 쳐 주면 학생들은 그 음을 듣고 따라 부르고, 다음 하행 음은 높은 도에서 시작하여 B-A-G#-F#-E-F#-G#-A 음으로 끝난다. 학생들이 음을 잘 못 듣는다면 처음부터 여러 음을 한꺼번에 쳐 주는 것이 아니고, 2음 / 4음씩 끊어 따라 부른 후上行-하행으로 끊어 따라 부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상·하 음을 쳐주며 같이 부르도록 한다.

<악보 6> ‘도-도 솔페즈’



이어서 주제곡을 프레이즈를 나눠서 부분 부분을 쳐주며 음 높이를 구분시켜 준다. 처음에는 다 같이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손가락으로 표현해본 후, 그 다음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정해진 칸에 프레이즈 별로 칠판에 그려본다. 여기서 두 번째 활동을 추가하여 한 칠판에 적어야 하므로 교사는 칠판에 미리 칸을 나누어 그려준다. 교사가 두 번째로 음을 쳐 줄 때는 올라가는 음에서는 점점 세게, 내려오는 음에서는 점점 여리게, 첫 마디와 같이 올라가고 내려움을 반복하는 음에서는 강-약-중강-약으로 쳐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셈여림을 경험하였으면, 다른 학생들이 칠판에 나와 프레이즈 별로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음 높이를 선으로 그린 칸 아래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대로 크레센도(crescendo)와 디미누엔도(diminuendo)를 그린다. 교사가 학생들이 정한 셈여림대로 피아노로 쳐주면, 학생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몸을 이용하여 활동을 해본다. 그 다음으로 A, B, C, D팀으로 나눠 간단한 코레오그라피

(Choreography)²⁷⁾로 만들어본다.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표 13>으로 정리해 본다.

<표 13> 팀별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활동

① phrase A팀	 문득 스치는 기억에 머물러 그대 이름을 부르면
	E A G#A B AB C# DC# F# BB A AA G# F#G #A
	crescendo diminuendo
	기지개를 켜며 팔을 올리고 팔을 내리며 몸을 수축한다.
② phrase B팀	 말없이 그대는 미소로 - 답하죠 내복 소릴 들나봐요
	EE A G#A B AB C#C#DC# F# BB A A G# F#G# A
	cresc. dim. cresc. dim.
	쫄쫄이 스카프를 털고, 원을 그리며 돌리다가 돌돌 만다.
③ phrase C팀	 머물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잊혀져 사라진 줄만 알았는 데
	AC# E C#B A G#A BAG#F# E AC# E C#B A G#A B
	cresc. dim. cresc. dim. cresc.
	몸을 최대한 늘려 주변을 살피며 축소·확대를 반복한다.
④ phrase D팀	 그대와 나 그 시절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죠
	EAA { B { C#C#DC# F# BB A A G# F#G# A
	cresc. dim.
	벌떡 일어나 멈춘 후 왼쪽으로 돌고 도망가다 서서히 멈춘다.

27) 음악을 분석하고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와 느낌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여 필자가 피아노를 쳐 주었는데, 피아노를 학생들이 직접 쳐 보며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즉흥 연주를 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며 테니스 공으로 8분음표와 4분음표를 사용하여 Black key 즉흥연주를 한다. 학생들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테니스공을 선택하였고, 건반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즉흥 연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lack key를 선택하였다. 리듬은 주제곡에 나와 있는 것과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사용하여 자신이 만든 리듬 중 택하고, 오른손-왼손 번갈아 가거나 양손을 함께 써서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4차시 평가

평 가		차시	4
학 습 목 표	1. 달크로즈의 3대 영역을 이해하였는지 알아본다.		
준 비 물	피아노, ppt, 리듬 막대, 테니스 공, 보드, 보드마카		
학 습 단계	교 수 학 습 활 동		지도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유리드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 7-1>을 팀(1,2)별로 1~18번 중 2가지를 택하도록 한다. -팀별로 정한 리듬이 완성되면 건기를 시켜본다. -1, 2팀별로 나눠 <악보 7-2> 손-박, 발-리듬을 건기를 시켜본다. -평가지를 나눠준 후 리듬을 쳐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한 리듬 표를 칠판에 그려본다. -발로 박을 걸으며 손으로 리듬을 쳐본다. -팀별로 활동에 맞게 걸어본다. -평가지에 교사가 쳐주는 리듬을 듣고 악보에 그린다. 	-평가지, ppt, 리듬막대
솔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 7-2> 첫 음을 눌러 준 후, 음 높이에 맞게 불러 보도록 한다. -불러본 곡을 피아노로 쳐주고, 2팀으로 나눠서 다시 불러본다. -평가지 악보에 음의 높낮이를 피아노로 쳐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음을 듣고 손으로 음 높이를 따라가며 노래를 불러본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불러 본 후 팀별로 나눠서 불러본다. -음을 듣고 평가지에 음표로 그려 본다. 	-피아노, ppt, 평가지
즉흥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 7-1> 말 리듬 즉흥 연주를 시켜본다. -테니스공을 나눠준 후 Black key 즉흥연주를 시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 7-1>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 말 리듬을 사용하여 즉흥 연주를 해본다. -테니스공을 잡고 2명씩 팀을 이뤄 1~18번의 리듬 표를 선택 하여 Black key에서 즉흥 연주를 한다. 	-피아노, ppt, 테니스 공

4차시는 평가를 하였는데, 여기서의 평가는 달크로즈 수업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업 전과 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기 보다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 영역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단, 리듬의 구별과 솔페즈의 수업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업시간에는 유리드믹스-솔페즈, 솔페즈-즉흥 연주, 유리드믹스-즉흥 연주가 서로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각 영역을 이해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유리드믹스와 솔페즈, 즉흥 연주로 나누어 교안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유리드믹스 영역을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팀으로 나눈 후, 각 팀별로 <악보 7-1>에서 1~18번 중 두 가지를 택하고 칠판에 음표를 표기한다. 팀별로 정한 리듬이 완성이 되면 리듬에 맞게 발-박, 손-리듬으로 걸어본다. 한 팀씩 활동을 마쳤으면 손-박, 발-리듬으로 바꾸어 활동을 한다.

<악보 7-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8 numbered staves, each on a five-line treble clef staff. The notes and rests are as follows:

- Staff 1: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2: Whole rest
- Staff 3: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4: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5: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6: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7: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8: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9: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0: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1: Whole rest
- Staff 12: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3: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4: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5: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6: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7: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 Staff 18: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그 다음으로 <악보 7-2>를 보며 먼저 손으로 리듬을 쳐 본 후, 두 번째에 발로 리듬을 걸어본다. 그 후 자리에 앉아 평가지를 나눠주고, 리듬을 쳐 주면 학생들은 그 리듬을 악보에 표기해본다.

<악보 7-2>

작은 변주곡

M. 린들러 작곡

솔페즈 영역에서는 도-도 솔페즈로 먼저 사장조(G Major)를 경험한 후, <악보 7-2>를 첫 음만 눌러주고 학생들이 부른다. 교사는 먼저 상행-C Major / 하행-G Major (C-D-E-F-G-A-B-C-B-A-G-F#-D-C-G)를 통해 도-도 솔페즈를 경험하게 한 후, <악보 7-2>의 첫 음을 눌러주면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음 높이를 그리며 노래를 불러본다. 이 악보에서는 가사를 만들기 보다는 ‘아’를 사용하여 불러보았다. 3차시 동안 솔페즈 수업의 목표가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보다는 음 높이에 맞게 부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노래를 한 번 불러서 익혔다면, 두 번째에는 각 마디의 첫 박을 생략(2차시에서의 내칭 훈련 방법)하여 노래를 불러 보았다. 이 활동이 끝나면 평가지에 음 높이를 음표로 표기해본다. 교사는 C Major를 먼저 쳐 준 후, 표기할 음을 쳐준다.

마지막으로 즉흥 연주 영역에서는 말 리듬과 테니스공을 이용하여 black key 즉흥 연주를 실시하였다. 먼저 앞의<악보 7-1>에서 한 번호를 선택하여 말 리듬으로 먼저 해본 후 단어를 박에 맞게 선택하여 멜로디는 자신이 가운데도~ 더 높은 도까지의 음역 중에서 택하여 작곡(즉흥 연주)해 불러본다. <표 14>를 참고한다.

<표 14> 노래로 하는 즉흥 연주의 예시

A학생	...	Z학생
♪ ♪ ♫ ♫	...	♪ ♪ ♫ ♫
배 고 파 요	...	안 녕 ()
미 솔 높은미 높은레	...	솔 높은도 ()

두 번째 즉흥 연주 평가로는 테니스공을 사용하여 black key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2명씩 팀을 이뤄 1~18번의 리듬 표를 각자 2가지씩 선택 하여 A 학생 먼저 Black key에서 즉흥 연주를 하고, 그 다음으로 B학생이 이어 연주를 한다. 순서는 A-B-A-B / A-A-B-B 학생들이 선택하여 하는데,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학생은 끝나는 느낌이 나도록 쉽표가 나온 번호의 악보를 선택하라는 조건을 붙인다.

IV. 결론

학교는 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 기관이며 지능이 뛰어난을 요구한다. 그러나 살아가며 지능보다는 창의성이 중요함을 더 느끼고 요즘 사회에서도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현대 교육에서 창의성 개발은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탐구되고 있는 바, 음악교육은 마땅히 그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⁸⁾ 본 연구는 필자가 달크로즈 교수법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본 교수법을 적용하여 이해시킬 때, 보다 흥미를 더 느끼고 빠르게 습득하는 현상을 보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음악과 동작을 연결하여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경험을 통한 수업이 음악 이해력,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에게 한정된 연구 결과이므로 타 학교, 타 지역 동학년 학생들과의 동일 실력이라 한정지을 수는 없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교안을 일반적으로 음악 시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크며 중요하다. 또한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능력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며, 교안만 보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본 교수법에 대한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빈도조사를 하였는데, ‘영·유아기부터 현재까지 음악시간에 활동 수업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8명 중 4명인 14.3%가 활동수업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 활동수업에 즉흥 연주를 받아본 경험에는 모두가 없다고 답하였다. 또, ‘리듬 막대로 들려주는 리듬들이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8명 중 7명인 25%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피아노의 음을 듣고 음의 높낮이나 차례가기·건너뛰기의 구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8명(28.6%)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렇듯 음악 교육의 다양한 경험도 없고, ‘달크로즈 교수법’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듣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음악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였다. 첫 시간

28)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1), 전계서, p.46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2, 3차의 수업을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하여 떠오르는 자신의 느낌들을 움직임과 즉흥연주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바꿔보는 수업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3차시라는 짧은 횟수의 수업을 받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주제곡을 빠르게 습득하였으며, 정확한 음을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자신들만의 몸동작으로 음에 대해 확실한 구별을 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 속의 소리들에 대하여 표현해보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또한 사전 실태조사 후에 실시한 사전 설문지 조사에서 총 28명 중 13명(46.4%)의 학생만이 음악 교과에 흥미를 느낀다고 답하였고, 음악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3~6세 사이에 처음 접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음악수업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5명(17.8%)의 학생들이 음악 교과서의 악보를 보고 음의 높낮이에 맞게 혹은 리듬에 맞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보며 생활 속의 소리들에 대하여 첫 시간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발로 박을 걷고 손으로 리듬을 표현할 때는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다. 1차시 수업 후 교안 수정을 통해 2차시 수업부터는 학생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며 손-리듬, 발-박 / 손-박, 발-리듬의 표현이 가능해 짐에 놀라웠다. 슬페즈 영역에서도 정확한 음을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자신들만의 몸짓 언어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였고, 즉흥연주를 통해 소리를 몸짓으로, 몸짓을 소리로 표현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1차시 보다는 2차시에, 2차시 보다는 3차시에 표현해보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였다. 클래식 보다는 대중음악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보다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과 즉흥연주의 실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검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집단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느낀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학생 :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다. 선생님을 따라 움직이다보니 이제는 리듬막대에 몸이 자기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B학생 :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여 바보같이 보였는데, 계속 반복해서 집중하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잘되는 모습이 신기하다.

C학생 : 선생님께서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테니스공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해서 재밌었다. 또 그 소리를 몸동작으로 하니 더 재미있었다.

D학생 : 말로 하는 즉흥 연주가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서 유치하다고 생각 했는데 막상 해보니 떠오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하니까 됐다.

E학생 :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도 이제는 몸동작으로 표현해볼까 생각하게 되고, 조별로 음악을 움직임으로 만들 때 재미있었다.

사후 설문지에서 위의 내용들이 나왔고, 25명(89.3%)의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악보의 난이도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적절하다고 대답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은 ‘발-박/ 손-리듬’의 활동이 제일 어려웠다고 답하였고, 테니스공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고 그 소리를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과 대화를 ‘달크로즈 교수법이 고등학교 수업에 효과적인가?’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23명(82.1%)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게임도 하고 조별로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부담이 없어 좋다고 하였다.

현재 교과 집중 이수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2~3교시로 편성되어 진행되는 수업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1인 1악기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악기다루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힘들어한다. 음악적 경험이 꼭 악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수업을 통해서라도 ‘음악적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에릭슨(Erik H. Erikson)²⁹⁾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체험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요즘 청소년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감정을 잘 읽어줘야 하지만, 현실은 학생들의 감

29)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의 대표적 이론가(1902-1994)

정을 읽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공부와 경쟁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우뇌를 자극해주는 학습 또한 필요하다. 필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이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움직임 자체를 힘들어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에게 내제되어있는 감정들을 표출하며 점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감성적 경험들을 음악 시간에 활동적인 수업과 스트레스를 풀어줄 장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나선형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수업들이 공교육 에서도 이루어져서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 교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게 운영되는 고등학교 음악시간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지도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달크로즈 수업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걷기(Walks) 음악>

학교 중
걷기(Walks)

arr. 손주희

Piano

The first system of music is for piano. It consists of two staves: a treble clef staff and a bass clef staff.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The treble staff contains a series of chords: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and a final chord C4-E4-G4 with a fermata. The bass staff contains a series of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D4, E4, F4, G4, A4, B4, C5, and a final chord C4-E4-G4 with a fermata.

5

The second system of music is for piano. It consists of two staves: a treble clef staff and a bass clef staff.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The treble staff contains a series of chords: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C4-E4-G4, and a final chord C4-E4-G4 with a fermata. The bass staff contains a series of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D4, E4, F4, G4, A4, B4, C5, and a final chord C4-E4-G4 with a fermata.

<부록 2. 달리기(Runs) 음악>

학교 중
달리기(Runs)

arr. 손주희

Piano

The image shows a piano score for the piece '학교 중 달리기(Runs)'. It consists of four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treble and bass clef staff.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staff containing a sequence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The bass clef staff contains a sequence of eighth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B3, A3, G3, F3, E3, D3, C3. The second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staff containing a sequence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followed by a whole note G4. The bass clef staff contains a sequence of eighth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B3, A3, G3, F3, E3, D3, C3. The third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staff containing a sequence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followed by a whole note G4. The bass clef staff contains a sequence of eighth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B3, A3, G3, F3, E3, D3, C3. The fourth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staff containing a sequence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followed by a whole note G4. The bass clef staff contains a sequence of eighth notes: C3, D3, E3, F3, G3, A3, B3, C4, B3, A3, G3, F3, E3, D3, C3. The score is in 4/4 time and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부록 4. 사전 검사지>

_____ 고등학교 1학년 1반 이름 _____

1. 선율을 듣고 악보를 완성해보세요.



2. 리듬을 듣고 (높낮이 없이) 완성해보세요.



<부록 5. 사후 평가지>

_____ 고등학교 1학년 1반 이름 _____

1. 선율을 듣고 악보를 완성해보세요.



2. 리듬을 듣고 (높낮이 없이) 완성해보세요.



참고 문헌

1. 국내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미래엔(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미래엔(대한교과서)
-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05), 「<개정판>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문연경(2007), 「유리드믹스 교수법 영유아」, 리더스하이
- 송진범(2000), 「음악교육학」, 학문사
- 심성태 편(2001), 「음악용어사전」, 현대출판사
- 유승지, 유은숙(2006), 「우리아이 쓱쓱」, 도서출판 뮤직트리
- 유승지(2001),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 태림출판사
- ,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I」, 태림출판사
- ,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III」, 태림출판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임규혁·임웅(2007),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2판)」, 학지사
- Abramson, Robert M. 유승지 옮김(2001),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위한 리듬게임」, 태림출판사
- ,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위한 리듬게임 II」, 태림출판사
- Dale, Monica. 유승지, 원소연, 이소라, 최연선 공역(2012),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활동집 I」, 도서출판 뮤직트리
- Schnebly-Black, Julia. / Moore, Stephen F. 이예스더 역(2008), 「내면의 리듬」, 상지원
- Yelin, Joy. / Braun, Elise. 유승지 옮김(1999),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클래스를 위한 즉흥 연주곡집」, 태림출판사

2. 현행 교과서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2010), *고등학교 음악 : 도서출판 태성*

3. 학위 논문

김은지,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 학습지도 방법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2009,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류미정, “달크로즈 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을 통한 지적장애아동의 주의집중력 향상 연구”, 200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희, “Emile Jaques-Dalcroze의 Rhythmic solfege 연구”, 2002,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진경, “놀이를 통한 유아음악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2005,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정혜련,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교육현장의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2005,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연선,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레슨에서의 불규칙 박자 지도방안 연구”, 2011, 한세대학교 대학원

4. 국내 학술지논문

김순담, “론지음악대학의 달크로즈 프로그램 연구”, 2009, 한국달크로즈학회

김유진, “달크로즈 즉흥연구 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 2009, 한국달크로즈학회

유승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활용 방안”, 201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하나영, “달크로즈의 이론을 적용한 음악 개념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2010, 한국달크로즈유리드믹스학회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음악교과 학습지도의 연구방안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손 주 희
지도교수 허 대 식

음악교육은 창의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음악을 수단으로 한 심미적 체험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의 음악교육은 음악적 지식과 가창기능을 중심으로 또한 음악적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음악교육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며 1990년 이후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경험하는 수업으로 바뀌어 가면서 교사들은 음악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여러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동작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경험을 통한 수업이 음악 이해력,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또한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안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에 대하여 떠오르는 자신의 느낌들을 움직임과 즉흥연주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하였다.

달크로즈는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감정은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 연주 세 교수법이 서로 연계되어 한 가지 방법에 치중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이 수업에 대하여 첫 시간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움직임 자체를 힘들어 하였고 발로 박을 걷고 손으로 리듬을 표현할 때는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음의 높낮이를 확실히 구별하지 못 하였고, 즉흥연주를 할 때 악기로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였다. 그러나 1차시보다는 2차시에서, 2차

시보다는 3차시에 자신들만의 몸짓 언어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였고, 즉흥연주를 통해 소리를 몸짓으로, 몸짓을 소리로 표현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감정들을 표출하며 점차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에릭슨(Erik H. Erikson)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체험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창적인 표현과 지식의 역할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우뇌를 자극해주는 학습 또한 필요하다.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감성적 경험들을 음악 시간에 활동적인 수업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교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게 운영되는 고등학교 음악시간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지도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달크로즈 수업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on Music Teaching Applying Dalcroze's Teaching
Method : for The 10th Grade Students

Son, Ju-hee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Music education direc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it aims at aesthetical experience through music.

In the past, the music education was mainly about musical skill such as musical knowledge and vocalism. Since 1970, it has started to be affected by American-style music education gradually and then after 1990, the education method trend has been changed from one-way teaching to participatory class that students find things meaningful for themselves and experience them. Accordingly, teacher have researched on music education methods and have applied various theories and model cases into actual classes.

This study has investigate how experimental class that is expressed by connecting music and motion affects students' understanding and expressiveness of music. Also, it suggests a class plan by developing class model from the teaching method of Dalcroze. Students have experienced to express their feelings of music by improvisation and motion through this class.

Dalcroze believed every feeling of human beings can be expressed by human body, and the class was carried out by the teaching methods: eurhythmics, solfege, improvisation that are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nd are well-balanced, not focused too much on one method. At first, most students had a difficult time in making motion and they confessed that it was very difficult to express rhythm by using their hands and feet as those did not move separately. In addition, they could not distinguish high and low of sound and had difficulties in expressing with instruments or their bodies when improvising.

As the class was repeated, they started to distinguish high and low of sound and to express their feelings by their motions and sounds better. Their motions gradually became natural by performing the activities turning sound into motion and vice versa through improvisation. They also start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enjoy the class.

Erik H. Eriks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ment of identity while achieving developmental tasks during adolescence. Also, he put value on experience. Teachers should give students inspiration for creative expression and the roles of knowledge. The students who use left brain more often requires the class that stimulates right brain. It is believed the emotional experiences that can be enjoyed at their age should be provided actively through active music education.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high school music class should be developed as the music class is absolutely less operated compared to other classes. The levels of difficulty should be adjusted to suit the students who do not have any experience in the teaching method of Dalcroze. An applicable and detailed method of teaching should be researched and applied to the education field in stages.